

칼군무 뜨거운 환호...“결선 못 갔지만 행복합니다”



16년 만의 출전, 한국 아티스틱팀

“이 무대만 보고 왔는데, 끝나고 나니 뿌듯하고 후련해요”

14일 오전 11시 광주종합체육관 아티스틱수영경기장에서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아티스틱스위밍 팀 테크니컬 예선 경기가 치러졌다. 백서연(건국대), 김지혜·이기빈·김준희(이상 동광고), 이재현·구재모(이상 마포스포츠클럽), 이리영(고려대), 이유진(백석대) 8명으로 이루어진 아티스틱스위밍 팀은 관중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입장했다. '독수리'를 주제로 선보인 한국 아티스틱스위밍

지난해 아계임 대비 13년만에 구성 전체 23개팀 중 17위로 예선 마감 “후배들 많이 생기게 더 성장할 것”

팀의 연기는 관중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수면을 뚫고 나오는 화려한 리프팅을 시작으로 음악에 맞춰 8명의 선수가 하나가 된 듯 아름다운 연기를 선보였다. 한국팀은 독수리를 연상시키는 절도 있는 칼군무, 강렬한 표정 연기, 깔끔한 동작을 보이며 관중들의 환성을 이끌어냈다.

한국 아티스틱스위밍 팀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전체 23개 팀 중 17위로 마감했다. 한국팀은 수행점수 23.3점, 예술점수 23.0점, 필수요소점수 30.1096점을 획득하며 총점 76.4096점을 기록

했다. 12위까지 주어지는 결선 티켓을 획득하지는 못했지만, 선수들의 표정은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아티스틱 수영 팀 종목에 한국이 출전한 건 2003년 바르셀로나 대회 이후 16년 만이다. 그리고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13년 만에 다시 팀이 생겼다.

이유진은 “우리가 못하면 아티스틱 팀 명맥이 언제 끊길지 모른다. 후배들이 많이 생기길 열심히 하겠다”며 울먹였다. 백서연은 “어렸을 적부터 꿈꿔왔던 자국에서 하는 무대에서 연기를 펼칠 수 있어 너무 기쁘다. 결선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경기의 발판 삼아 더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팀 규정종목(테크니컬)예선에서는 러시아가 96.2253점으로 1위, 중국이 94.3638점으로 2위, 우크라이나가 93.3313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주 경기장인 남부대 마켓스트리트 내에 마련된 서울시 홍보관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층 시티투어버스를 활용해 마련된 서울시 홍보관은 7월12일부터 8월18일까지 운영된다. /특별취재단=최현배 기자 choi@

광주세계수영대회 성공 개막 뒤에 박원순 서울시장 아낌없는 지원 있었다

지자체 중 최다, 입장권 2만매 구입 인력 파견하고 서울시 곳곳에 홍보판 남부대에 서울시 홍보부스 설치·운영



시 홈페이지, 서울시 발간 잡지 등을 통한 수영대회 홍보와 함께 팸플릿 제작·배포 등으로 광주세계수영대회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처럼 서울시가 광주세계수영대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나선 배경에는 ‘서울과 지방 상생’이라는

박원순 시장

14일 광주시와 서울시가 따르면 이번 대회에 정부와 전남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도움도 많았지만, 서울시의 지원과 도움은 남달랐다는 평가다. 입장권의 경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가 가장 많은 2만매를 구매했다.

박원순 시장은 단체 구매한 입장권을 서울 자치구별 인구수에 비례해 배분, 서울시민들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대회 기간 중 서울시 공무원 등 22명을 대회 운영을 위해 광주에 파견하는 등 인력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특히 주 경기장인 남부대학교 내 마켓스트리트에 서울 시티투어버스를 활용한 서울시 홍보판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회 각종 문화행사 참여에도 적극적이다. 15일과 16일에는 서울시 홍보판 앞에서 서울 거리예술단과 대중가수의 공연 그리고 서울관광 콘텐츠 상영 등이 이뤄지는 ‘Little 서울광장’ 컨셉의 ‘서울시의 날’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영대회 입장권 단체 구매와 대회 기간 중 서울 홍보판 운영, 파견 직원 출장비 등의 비용을 합치면 서울시가 이번 대회에 20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서울시는 교통방송과 서울시내 곳곳의 전광판, 지하철 광고, 서울

시 홈페이지, 서울시 발간 잡지 등을 통한 수영대회 홍보와 함께 팸플릿 제작·배포 등으로 광주세계수영대회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처럼 서울시가 광주세계수영대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나선 배경에는 ‘서울과 지방 상생’이라는

박원순 시장의 기본 철학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 시장의 광주에 대한 무한 신뢰와 무한 애정이 이번 수영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 온 시민참여 및 협치 모델 정책이 광주·광주시민들과 가장 잘 매칭될 것 같다는 점에서 많은 지원과 협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원익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4일 “서울시 파견 공무원을 격려하고 홍보판 운영 등을 점검하러 개막식날 광주를 찾았는데, 대회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고 자원봉사 등 시민 참여가 돋보였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인 만큼 이 대회를 통해 광주시가 세계 속의 광주로 성장하길 기원하고,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때까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14일 광주 염주수영장에서 열린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아티스틱스위밍 팀 테크니컬 부문에서 한국팀이 연기를 펼치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

한국 여자 수구팀 데뷔전 “다음 경기에선 꼭 한 골 넣겠습니다”

강호 헝가리에 0-64로 대패

“아직 부족한 것도 많지만 더 열심히는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꼭 1골을 넣겠습니다.”

스코어 0-64, 슛팅 숫자 71-3.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종목에 처음으로 출전한 여자 수구대표팀이 헝가리에 0-64로 완패했다.

14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 수구경기장 입장에 앞서 주장 오희지(전남수영연맹)는 대표팀 선수들을 다독였고 “대한민국 화이팅!”을 외치며 팀원들과 결의를 다졌다. 오희지를 빼면 중학생 2명, 고등학생 9명, 대학생 2명 등 어린 선수들로 구성된 대표팀은 이날 헝가리 국가가 울릴 때 국가에 대한 경례를 하며, 경기 중에는 잠시 물을 혼동하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기시작과 동시에 매섭게 달려든 헝가리에 대표팀은 12초만에 반칙을 범하며 리지 도로체(헝가리)에게 페널티스로 첫 골을 내줬다. 20초 뒤 골키퍼 오희지가 상대의 결정적 기회를 세이브하며 분위기가 반전의 기회도 만들었다.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헝가리 선수들의 압박과 수비에 번번이 막히며 이렇다 할 찬스 한번 잡지 못했다. 대표팀은 피지컬을 앞세운 헝가리 선수들에 막혀 패스할 곳을 찾지 못하며 고전했다. 여기에 30초 내에 공격을 해야 하는 30초 룰에 쫓기면서 헝가리에게 공격권을 잇따라 빼앗겼다. 헝가리는 2016 리우 올림픽 4위, 1994·2005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2002 월드컵 우승에 빛나는 여자수구 강호다.

이번 여자 수구 대표팀은 출전 자체가 기적이었다.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한국에는 여자 수구 대표팀이 없었다. 여자 수구 전문 팀은 물론 선수도 없었다. 대

회를 1달여 앞두고 급조된 13명의 선수는 한 달여만의 연습을 거친 후 헝가리를 상대했다. “가슴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울릴 정도로 강한 슈팅이었다”고 회고한 골키퍼 홍택영처럼 주장 오희지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며 헝가리의 슛을 육탄방어했다.

헝가리도 최악재 한국을 상대로 경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했다. 1라운드 16점, 2라운드 18점, 3라운드 16점, 4라운드 14점 등 무더기 골을 넣으며 한국을 몰아붙였다. 헝가리는 이날 71개의 슈팅 중 64개가 골망을 갈랐다. 반면 한국의 슈팅은 3개였고 골문 안쪽으로 향한 유효슈팅은 단 1개뿐이었다.

여자 수구 대표팀의 역사적인 첫 번째 경기는 이렇게 끝났다. 주장 오희지는 “선수들을 잘 다독여서 남은 경기에서 팀워크를 살려 목표인 한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특별취재단=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1566-9988

8 5 1
1 6 5 2 4
6 8 2 4 7 5 8 1
2 5 1 6 4 9 7 8 3
1 3 0 7 5 8 4 9 2
2 4 6 3 7 1 2 8 0
4 6 2 8 1 0 9 7 3
5 7 6 2 1 4 3 0 2
3 2 1 7 9 9 0 2
1 1 1 1 1 1 1 1 1 1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010-4061-7200